

찬 송 ————— 589장 ————— 다 갈 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배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 기 도 —————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 ————— 다 갈 이

예배를 마친 후 식사 또는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봅시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은혜였는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물들을 찾아 나누어봅시다.

| 예배의 진행 |

1. 추모예배

- 1) 추석 명절 예배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 2) 먼저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가족 모두가 가장을 중심으로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 3)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더라도 잘 말씀하셔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합니다.
- 4)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 5) 음식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예배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 6) 추석 명절 가정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2.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 1) 인도는 가장 또는 가족 중에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기도와 성경봉독, 말씀은 인도자가 하거나 가족 중에 담당자를 따로 정하셔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개역개정판 성경과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01장 ————— 다 갈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 가 족 대 표

성 경 봉 독 ————— 시 81:1-4 ————— 다 갈 이

1.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3.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4.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말 씬 ————— “명절에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이유” ————— 가 족 대 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시편 81편 1절~4절을 중심으로 시편 81편 전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힘든 강제 노역 때문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 또 손에 광주리를 놓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시를 읊고 악기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11절)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해야 합니다. 어미 새가 벌레를 잡아 오면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은 서로 먼저 먹겠다고 힘껏 입을 벌립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투정부리는 아이처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쓴 약을 먹이는 엄마 앞에서 안 먹겠다고 입을 꼭 다문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입을 벌려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 하늘의 밥맛을 경험한 사람은 입을 벌리되, 최대한 크게 벌립니다. 또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나게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보십시오. 박수를 치며 입을 벌려 신나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셋째, 성도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시 81:4). 음력 초하루는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날이고, 보름이 되면 완전히 둥글게 됩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면 다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은 한 달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하루와 보름은 매일같이, 날마다, 항상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평생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4절은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란 1년 12달 중 신앙적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사람마다 달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제사를 중요시 하는 집안에선 돌아가신 조상들 중심으로 달력을 봅니다.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교회절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절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절기를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절기가 아닌 민족의 명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설날에는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석에는 해와 비를 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